

다니엘서 - 번호 백다섯

복음에 대한 점진적인 배척: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스테반이 돌에 맞은 사건까지

Jeff Pippenger

2024-02-29

지난 글에서 우리는, 영감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복음에 대한 거부를 "확정지었다"고 하고, 이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거부를 다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물론, 그 당시 트집을 잡던 유대인들의 복음 거부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분이 태어나실 때 이미 그들은 제쳐졌다.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기까지는 복음에 대한 점진적 거부를 보여 준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소식은 하늘을 기쁨으로 가득 채운다. 빛의 세계로부터 온 거룩한 존재들은 더 깊고 더 애정 어린 관심을 품고 이 땅으로 이끌린다. 그분의 임재로 온 세상이 더욱 밝아진다. 베들레헴의 언덕 위 하늘에는 무수한 천사 무리가 모여 있다. 그들은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만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했다면,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기쁨에 동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제쳐졌다. 시대의 소망, 47.

예수의 탄생부터 스테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대 이스라엘이 복음을 점진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드러난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점진적이었음을 인정하면, '그들의 거부가 봉인됨'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십자가와 스테반의 죽음, 이 두 사건에서 식별할 수 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님을 상징했고, 스테반이 돌에 맞을 때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예수를 보았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은혜의 시기 종결의 상징이다. 예루살렘의 파괴 역시 은혜의 시기 종결의 상징이다.

예루살렘에 닥칠 징벌은 잠시밖에는 미룰 수 없었고, 그리스도의 시선이 그 파멸이 예정된 도성 위에 머물렀을 때 그분은 단지 그 멸망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멸망을 보셨다. 그분은 예루살렘이 멸망에 넘겨진 것처럼 세상도 그 파멸에 넘겨질 것을 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임할 보응을 보셨다. 예루살렘의 멸망 때 벌어졌던 장면들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에 더 두려운 방식으로 반복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7년 12월 7일.

예루살렘이 십자가 때에 멸망하지 않도록 막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였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일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내포되어 있었다. 갈보리에서 흘려진 피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그들을 파멸로 가라앉힌 무게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그 큰 마지막 날에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그들의 걸림돌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때에는 그들에게 보응의 산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의인들에게는 생명인 그의 얼굴빛의 영광이 악인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될 것이다. 거절된 사랑, 멸시된 은혜 때문에 죄인은 멸망할 것이다." 시대의 소망, 600.

십자가의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연시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였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신 뒤 거의 사십 년 동안, 주께서는 그 도성과 그 민족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셨다. 그분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분의 아들을 죽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놀라웠다. 대쟁투, 27.

마지막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을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피하라고 경고하셨다. 처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는 유대인들이 그분의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너희 집이 너희에게 버려져 황폐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곧 닥칠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십자가 때 휘장이 찢어질 그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집으로 규정되었다. 화잇 여사는 그리스도께서 그 선언을 언제 하셨는지를 다루고, 그녀의 증언이 진행되면서 사십 년간 연장된 자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황폐한 채로 남겨질 것이다’(마태복음 23:38)는 그들의 마음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태연한 척했지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고개를 들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이 그들을 위협하는 듯했다. 민족의 영광이던 그 웅장한 성전이 머지않아 폐허의 더미가 되고 말 것이라는 뜻인가? ...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임할 멸망의 징조를 주시고, 어떻게 피할지를 알려 주셨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 황폐함이 가까움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나가라; 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는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보응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이 경고는 그로부터 사십 년 뒤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유념하도록 주어진 것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경고에 순종했고, 그 성이 멸망할 때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죽지 않았다. *The Desire of Ages*, 628, 630.

그리스도께서는 서기 31년에 십자가에 못박히셨고, 거의 40년이 지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은 3년 반에 걸친 포위 끝에 파괴되었습니다. 만약 다니엘 9장 24절에서 칠십 이레로 제시된 은혜의 기간 가운데 아직 3년 반이 남아 있었다면, 서기 31년의 십자가 사건에서 예루살렘이 이미 파괴되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걸보기의 모순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해결책은, 칠십 이레로 나타난 은혜의 기간의 마감은 점진적 종결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이지만, 그 역사의 이정표들을 적용할 때 예언적 구체성을 없애 버립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바벨론에 있는 다른 양 떼가 나오도록 부르심을 받게 되는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을 대표한다면, 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간 것은 오순절 이후 삼 년 반이 지나서였는가? 고대 이스라엘의 은혜의 시기 종료를 알리는 표징은 그리스도의 죽음인가, 아니면 스테반의 죽음인가?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재림교회가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 때 교회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면, 서기 70년의 성전 파괴는 일요일 법령 때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재림교회의 성전이 끝남을 대표하는 것이었는가? 겉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점들도 "line upon line"의 적용으로 해결되며, 그 적용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식별하고 있는 이정표들의 증언은 매우 분명하고 간결해진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확증하신 그 한 주간은 3년 반씩 두 개의 동일한 기간으로 나뉜다. 첫 번째 3년 반은 그리스도의 세례에서 시작하여 그의 죽음으로 끝난다. 세례는 그의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므로, 그 3년 반 기간의 시작은 그 끝과 동일하다.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다. 그 3년 반의 끝은 이어지는 다음 3년 반의 시작을 의미한다. 두 번째 3년 반 기간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난다.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서로 별개의 예언적 선을 이루는 그 두 기간은 "줄 위에 줄"로 서로 맞추어야 한다. 시작과 끝 모두가 알파와 오메가의 표징을 지니는데, 이는 시작과 끝의 역사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두 기간의 지속 시간은 동일하며, 각 기간 동안 수행되는 일도 동일하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런 점에서 그분은 진리의 창조주이시다.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는 세 개의 히브리 문자로 이루어진다. 히브리 문자 체계의 첫째 글자와 열셋째 글자, 그리고 마지막 글자를 결합하면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가 된다.

세 해 반의 두 기간 모두의 처음과 마지막은 그리스도이시다. 첫 번째 기간은 그분의 세례로 시작되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끝난다. 또 두 번째 기간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고 그 끝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 숫자 열셋은 반역의 상징이며, 복음이 첫 번째 기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두 번째 기간에는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전해졌든, 두 기간 모두에서 트집을 잡는 유대인들은 복음의 메시지에 반역했다.

두 시기는 같은 길이를 가지며, 알파와 오메가의 표징을 지니고, 동일한 복음 메시지를 가리킨다. 그 두 시기는 'line upon line'으로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 'line upon line'의 방법론은 늦은 비의 시험 방법론이다. 그것은 말세의 방법론이며, 그 방법론으로 말세에 식별되고 확립되는 진리들이 십사만 사천의 인침 동안 레위의 자손들을 정결하게 하거나 정화한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교훈을 깨닫게 하겠느냐? 젖을 땀 자들, 젖가슴에서 떼어진 자들에게로다. 이는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명령에 명령을 더하며; 줄에 줄을 더하고, 줄에 줄을 더하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라. 그는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는 너희가 피곤한 자를 쉬게 하는 안식이요, 이는 새롭게 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명령에 명령을 더하며; 줄에 줄을 더하고, 줄에 줄을 더하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서지고, 울무에 걸려 붙잡히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28:9-13.

이사야의 다음 절은 예루살렘의 백성을 다스리는 조롱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조롱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듣기를' 거부한 '안식과 새롭게 함'(늦은 비)은 그들로 하여금 '가서 뒤로 넘어지고 부서지며, 울무에 걸려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다. 그 시험은 다른 언어로 그들에게 제시되었는데, 이는 엘리야와 세레 요한, 윌리엄 밀러가 각자의 시대에

신학 학교에서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를 시험하는 늦은 비의 메시지는 '줄에 줄을 더함'을 적용하여 나온 메시지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확증하신 그 한 이레에서 첫 3년 반을 둘째 3년 반 위에 겹쳐 놓아 보면, 탐구하는 마음에 생길 수 있는 겉보기에 모순된 점들을 밝혀 주는 예언적 빛을 발견하게 된다. 그 한 이레는 언약의 사자가 언약을 확증해야 하는 때였고, 성경적 언약은 반드시 피로 확증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세례와 십자가 처형, 그리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은 모두 피를 가리킨다. 두 선은 모두 언약의 피를 나타내며, 그 선들이 곧 언약을 확증하고 있다.

"줄 위에 줄"로 함께 겹쳐 볼 때, 세례와 십자가가 첫 번째 이정표이고, 십자가와 스테반의 돌에 맞아 죽음이 마지막 이정표이다. 한 줄로 합쳐 놓으면, 우리는 십자가와 스테반의 죽음 때 미가엘이 일어서는 사건을, 유대인들이 복음 거절을 확정짓는 두 증인으로 보게 된다. 두 줄을 결합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제자 스테반의 죽음이기도 하며, 그것이 유월절이다. 사흘 뒤에 그리스도는 첫 열매 제물로 부활하신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20.

유월절과 셋째 날의 초실절 사이에는 무교절의 시작이 있다. 무교병은 '부풀어 오르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도 둘째 날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적용에서는 그리스도와 스테반이 함께 죽지만, 첫 열매 부활에는 순서가 있으므로 스테반은 그리스도 다음에 부활한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순서대로: 그리스도는 첫 열매요, 그 후에는 그가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 고린도전서 15:22.

봄 절기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서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은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을 상징하며, 그때 성령의 부어 주심이 재현될 것이고, 요한계시록 18장의 두 번째 음성이 현재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를 것이다.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벨'에서 비롯되었는데, '혼란'을 뜻한다. 바벨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오순절에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언어의 혼란을 되돌리셨다. 그러므로 오순절과 일요일 법령은 서로 맞물린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그때 아직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 두 가지 근거를 종합하면 오순절은 서기 34년에 해당하며, 그때 스테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고 이어 복음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던 이들에게 전파되었다.

스테반은 "그의 재림 때" 부활할 자들, 곧 그와 함께 죽은 자들을 대표한다. 첫 열매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또한 칠칠절, 곧 오순절의 시작을 알리는데, 이 절기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진 것을 기념한다.

1844년 10월 22일은 십자가와 상응한다. 이는 여러 다른 증거들 가운데서도 화잇 자매가 십자가 후 제자들의 실망을 1844년 10월 22일 뒤따른 실망과 연결하기 때문이다.

십자가와 1844년 10월 22일, 둘 다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을 예표한다. 오순절 또한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을 표상하지만, 오순절은 십자가 후 52일 뒤에 찾아왔다. 유월절로 예표된 십자가는, 사망의 천사가 애굽을 지나갔던 그 밤으로부터 율법이 주어지기까지의 고대 이스라엘의 옛 길을 기념하는 일련의 절기들을 열어 준다. 각 절기는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서로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의 온전한 52일을 하나의 이정표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십자가, 스테반의 죽음, 그리고 오순절은 모두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을 예표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18장의 둘째 음성이 하나님의 다른 양 떼를 바벨론에서 나오라 부르기 시작함과 더불어 현대 바벨론에 대한 점진적 집행 심판이 시작되는 때이다. 바로 그 이정표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집행 심판이 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심으로 십자가 이후 거의 40년이 지난 주후 70년까지 성전과 도성의 실제 파괴를 유예하셨다. 옛 예루살렘의 파괴는 '국가적 배도 다음에는 국가적 파멸이 따른다'는 일이 있을 때 미국에서 시작되는 점진적 집행 심판의 시작을 나타낸다.

진리는 두 사람의 증언에 근거하여 확립되며,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확증하신 3년 반의 두 기간에서 우리는 곧 임할 일요일 법령을 밝혀 주는 역사와 연관된 죽음과 부활의 두 증인을 발견한다. 그 일요일 법령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큰 지진의 한 시간'으로 지칭된다. 그 '한 시간'은 3년 반 동안 증언한 두 증인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들의 증언은 그들의 죽음과 부활로 끝난다.

그들의 3년 반에 걸친 증언과 그 뒤이은 죽음과 부활은 예수와 스테반 둘 모두의 죽음과 부활로 상징되어 왔다. 이는 'line upon line'에 따라 스테반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첫 열매의 절기에서는 두 가지 주요 제물이 바쳐졌다.

하나는 흠 없는 어린 양이었고, 다른 하나는 보리 제물이었다. 보리는 뒤이어 올 추수를 상징했고,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스테반은 뒤따르는 자들을 대표했으며, 보리는 뒤이어 올 추수를 상징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3년 반 동안 증언했고, 그 후 그들은 죽임을 당했으며 삼일 반 뒤에 다시 살아났다. 그 두 증인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예표되었으니, 그들은 또한 첫 열매들인 14만 4천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양이 시온 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그들의 이마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십사만 사천이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 소리 같았으며, 또 수금 타는 자들이 그들의 수금을 타는 소리도 들리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그들은 순결한 자들이다. 이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양께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자들이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더라. 요한계시록 14:1-5.

초실절에 드리는 보리 제물은 뒤이어 올 수확을 대표했으며, 34년의 스테반은 31년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뒤따랐다. "줄에 줄을 더해" 보면, 그들은 같은 이정표에서 죽었다. 첫 열매 제사와 관련하여,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었고 스테반은 보리였다.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잠든 자들의 첫 열매"이며, 그 후에는 "그의 강림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십사만 사천은 첫 열매들이며, 그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이 있는 "그 시각"에, 삼 년 반 동안 예언하였다가 결국 죽임을 당해 사흘 반 동안 거리에 누워 있던 두 증인이 부활한다. 그들은 예언적으로 예수와 함께, 또한 예수 이후에 부활한 스테반으로 예표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살해된 뒤 "사흘 반" 만에 부활한다. 그들이 부활하는 같은 "그 시각"에 그들은 표징으로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들의 부활과 승천의 과정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면밀히 서술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는 그들이 스테반의 문자적 죽음으로 예표되었다는 사실이 포함된다. 이로써 두 증인은 셋째 천사의 라오디게아 운동에서 셋째 천사의 빌라델비아 운동으로 변모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영적 죽음을 나타낸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사탄의 깃발 아래 서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의 증언들에 담긴 경고와 책망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버릴 것이다.

더 큰 헌신과 더욱 거룩한 봉사에 대한 부르심이 주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주어질 것이다. 지금 사탄의 암시를 말하고 있는 어떤 이들은 제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다. 중요한 신임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이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당신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삼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 기별 듣기를 거절한다면, 그들은 흑암의 왕자의 검은 기치 아래에 서게 될 것이다.

나는 이때를 위한 귀한 진리가 인간의 마음에 점점 더 분명하게 열리고 있다는 말을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특별한 의미에서 남녀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한다. 진리는 끊임없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해가 발전하게 될 것이다. 진리의 신성한 창시자께서는 그분을 알기 위해 계속해서 따르는 이들과 점점 더 가까운 교제를 나누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하늘의 떡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의 나아가심이 아침처럼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몸이 육체적 힘을 얻는 것처럼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일에 담긴 주님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복음에서 비추는 신성한 빛줄기들을 거두어 모을수록, 우리는 유대 경륜을 더 분명히 통찰하게 되고, 그 중요한 진리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의 진리에 대한 탐구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몇 줄기의 빛만을 거두었을 뿐이다.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 경륜의 문제들을 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성전 봉사가 가르치는 진리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위대한 계획에 대한 세속적인 이해로 인해 방해받는다. 장차 올 생애에서, 구름 기둥에 싸여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들의 의미가 펼쳐질 것이다."

Spalding and Magan, 305, 306.